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외인구단’ 청순 엄지→섹시 어우동으로 변신했던 그녀

이번엔 해괴망측 ‘계솔이’로 인기

‘수상한 삼형제’ 이 보 희

24년 전 그녀는 ‘엄지’였다. 영화 ‘이장호의 외인구단’(1986)에서 까치의 불 같은 사랑을 받는 청초한 엄지로 그는 스크린을 강타했다.

또 그전에는 양반들을 희롱하는 색기 넘치는 ‘어우동’(1985)이었고 ‘무릎과 무릎 사이’(1984)를 통해서는 섹시 스타의 대명사가 됐다.

그렇게 1980~1990년대 특급 스타로 스크린을 누볐던 이보희(51)가 2010년 안방극장에서 이름도 해괴망측한 ‘계솔이’ 역으로 또다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막장 드라마’라는 비난 속에서도 시청률 40%를 넘나드는 KBS 2TV 주말극 ‘수상한 삼형제’에서 그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솔직함과 의리, 인간적인 매력으로 뭉친 계솔이를 맡아 ‘이보희의 대반전’을 보여줬다.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캐릭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런 캐릭터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배우로서 망가지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그보다는 맡은 역을 잘 소화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죠.”

계솔이는 그가 데뷔 31년 만에 처음으로 맡아보는 이색적인 캐릭터다. 20~30대는 청초하거나 섹시한 역을 했고 40대 이후에는 우아하고 단아한 어머니 역을 해온 그로서는 ‘파격’이다.

“문영남 작가님이 ‘뒤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지면 뒤에서 우리가 받치고 있을 테니 넘어져서 다치면 어쩌나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넘어져라’고 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 “무식하지만 솔직 그래서 사랑받는 중년의 신데렐라죠”

작가의 말에 힘을 얻은 그는 외모에서부터 파격을 꾀했다. 너무 꼬불꼬불하고 까만색이라 가까이서 봐도 가발처럼 보이는 계솔이의 머리는 진짜 이보희의 머리다. 염색도 안 했다. 촬영이 있는 날이면 1시간 30분씩 머리카락을 말아서 빚어낸 결과다.

“가발을 쓰면 이런 느낌이 안 나요. 꼬불꼬불 말아야 하니까 귀, 목 뒤 등이 많이 데었어요. 열을 가해야하니 엄청 뜨겁죠. 그나마 처음에는 2시간씩 걸렸는데 익숙해지니까 30분이 줄어들었어요.(웃음)”

이렇게 머리를 완성시킨 그는 색색의 진한 화장, 커다란 귀걸이, 컬러플하지만 잘 매치가 안되는 의상을 준비해 계솔이의 패션을 완성시켰다.

“처음에는 이름이 ‘솔이’라고 해서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이 ‘계’씨라대요.(웃음) 계솔이를 하면서 정말 시원했고 스트레스 해소도 됐어요. 전 남한테 할 말 다 못하고 사는데 계솔이는 거침없이 다 하잖아요. 방귀 뀌는 것도 그래요. 누구나 혼자 있으면 뀌지 않나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계솔이가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는 계솔이에 대해 “무식하지만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이 다분한 여자다. 또 무엇보다 의리가 있다”고 말했다.

“초반에는 딸에게 뻔뻔하게 신세도 많이 졌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딸은 계솔이가 제일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안하면서도 투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계솔이도 정작 딸이 어려워지니 앞뒤 안 가리고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계솔이를 동병상련하는 시청자가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던 계솔이는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끈끈한 동지’가 됐다. 그리고 부자인 주범인(노주현 분)의 끈질긴 구애를 받아 결혼까지 했다.

“중년의 신데렐라죠. 서민의 신데렐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주범인과 계솔이의 결혼을 응원하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도 계솔이의 진면목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범인처럼 괜찮은 사람과 연결돼도 괜찮겠다고 생각해주시는 것 같아요. 계솔이는 이제 주범인과 세계여행을 다닌대요. 최고로 팔자가 폈죠.(웃음)”

이보희는 “계솔이를 연기하며 많이 공부했고 앞으로 어떤 역이 들어와도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다. /연합뉴스

‘제빵왕 김탁구’의 윤시윤

두번째 드라마서 주인공

“에너지와 행복 전할게요”

쟁쟁한 스타들의 경연장인 미니시리즈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그가 발탁된 것은 분명 ‘사건’이다. 스타 시스템에 보기 좋게 한 방을 날릴 수 있을까.

지난해 MBC TV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으로 데뷔한 윤시윤(24)이 두 번째 드라마에서 곧바로 주인공으로 뛰어올랐다. 지난 9일 첫선을 보인 KBS 2TV ‘제빵왕 김탁구’의 타이틀 롤을 맡은 것이다.

이 드라마의 제작발표회에서 윤시윤은 “보여 드린 것보다 앞으로 보여 드려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준비했다”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하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작이나 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기가 죽어서 고개 숙인다거나, 반대로 큰 역할을 맡았다고 우쭐대며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앞을 보고 뛰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주변에서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든든합니다.”

1970~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대기업인 거성기업의 장남이지만 서자라는 이유로 버려진 김탁구가 천부적인 재능을 살려 온갖 어려움을 딛고 제빵업계 1인자가 되는 이야기다.

김탁구는 개성상인의 후예이자 제빵업계의 숨어 있는 대부 팔봉선생(장항선 분)으로부터 제빵사와 상인으로서의 도를 전수받는다.

“김탁구는 주변에 에너지와 행복을 전해주는 인물입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 행복한 마음으로 찍었으면 좋겠고, 김탁구가 전하는 행복한 에너지 때문에 시청자들이 긍정의 힘을 얻게 되면 좋겠어요.”

제빵사 연기를 위해 제빵학원을 다니는 그는 “빵 만드는 법을 처음 배웠는데 재미있다”며 “그런데 즐겁게 만드는 데 집중하다 보니 잘 만들지는 못한다”고 웃었다.

‘지붕뚫고 하이킥’ 이후 영화 ‘고사 두번째 이야기’를 거쳐 ‘제빵왕 김탁구’에 캐스팅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낸 그는 “바쁘게 세 작품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극중 인물에 빠지는 것 못지않게 그 인물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빠져나오는 것이 많이 힘들었지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성균관 스캔들’ 주인공 탤런트 박민영 캐스팅

탤런트 박민영(24)이 청춘 사극 ‘성균관 스캔들’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거침없이 하이킥’ ‘아이엠 샘’ ‘자명고’ 등으로 부상한 박민영은 이 작품에서 병약한 남동생 대신 치른 과거 시험에서 덜컥 합격해 ‘금녀의 공간’인 성균관에 남장 유생으로 들어가는 김윤희 역을 맡았다.

인기 소설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을 원작으로 한 ‘성균관 스캔들’은 그룹 동방신기의 믹키유천과 송중기, 유아인 등이 캐스팅돼 이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드라마는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맴돌던 사랑한다는 말, 정말이지 훈훈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어지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기 스스로가 지켜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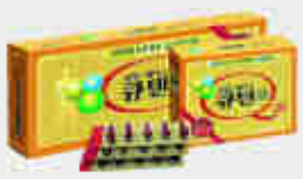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지킬 줄 아는 착한 사람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m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비타민 A, C, E의 보급
- 폭제제로 임신 수유기 영양 병후의 피부 저해시, 노년기
- 눈의 근조절의 원회, 야맹증
- 방사·자외선 등에 의한 세포손상(기미, 주근깨의 방지, 잇몸출혈 치료의 예방
- 혈초혈행장애 및 갱년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 어깨·목결림, 수족저림·수족냉증

아연의 보급



국제-에이스
큐텐 안질캡슐

권고심의필 1036-0600